국가별 동향

미 국

원유와 식용유 시세

CBOT 곡물시세는 이번 주 원유 등 다른 상품 시세가 다시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채종유 감산 전망이 전해져 대두유 시세 주도로 고가가 계속 되었다.

금주 말 미 농무부 전망회의에서도 재차 금년의 곡물 시세의 강세 조짐이 확인되고 있어 다음 주는 고가 경계감으로부터의 조정을 받으면서도 원유 시세와 식용유 시세는 계속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옥수수의 에탄올을 위한 수요와 대두유의 바이오 디젤을 위한 수요는 계속 증가 경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바이오 디젤을 위한 수요에 관해서는 「바이오 디젤 생산은 채산 악화로부터 가동률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등으로 해서 현실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비판도 나와 있다.

주요 3곡물 합계의 작부면적의 대폭 증가 예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시세 상승을 부르지 않기 위해 생산고에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는 해석 방법도 있다(SGJ).

태 국

재래시장 도계 금지 논쟁

태국 정부는 4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인 '재래시장에서의 가금류 도계를 금지하는 법안' 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정부에서는 법안 시행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금업계의 반반이 커짐에 따라 이번 계획이 보류될 수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 금지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생산자 · 상인 · 공무원 관계자들이 재논의를 커져 재추진 할 계획을 전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금류를 재래시장에서 도계하지 말 것을 권고

했지만 미리 도계작업을 거쳐 냉장냉동 처리된 닭이 아닌 생닭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선호하는 풍토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여 이번 법안을 진행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상인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제시되어야만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ThePoultrySite).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가축 및 사료사업지원

아르헨티나는 파키스탄과 공조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파키스탄의 가축 및 사료산업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아래 아르헨티나는 생산 및 가공분야에 파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며 양국간 보건위생과 사육, 백신생산을 위한 축산분야에 관한 공동연구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파키스탄은 다양한 유전자 변형 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해바라기와 대두 같은 기름을 생산하는 품종에 대한 지원을 아르헨티나에 요청했다.

중 국

원자바오 총리, 농업발전을 위한 3과제 제출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 회의에서 정부활동보고와 함께 국가의 토대가 되는 농업건설을 강화하고 농업발전과 농가 증수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화사통신가 전했다.

원 총리는 "금년은 여러 조치를 취해 농업의 풍작을 확보하고 농가의 증수에 노력해 사회주의 신 농촌건설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특히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1. 곡물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농작물 공급을 확보한다.
2. 농업의 인프라 정비를 강화한다.
3. 농가의 증수를 위해 루트를 개척한다.

위 과제실행을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주요조치로 1.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2. 농업지원정책의 강화 개선, 3. 가장 엄한 농지보호제도를 유지하고 농작물 수요에 따라 정한 '기본농지' 보호 철저, 4. 농업에의 과학기술 응용 보급과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5. 농촌개혁의 전면적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CN)

귀주성에서 AI로 가금 3,993수 폐사

귀주성 준의시 정안현 봉의진북원사구에서 17일 발생한 AI 유사 감염증은 국가AI참고실험실에 의해 H5N1아형의 HPAI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의 감염으로 가금 3,993수 폐사, 23만 8,364수가 살처분되었다.

감염 확대는 이미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AI 발생 후 농업부와 성 인민정부는 긴급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각종 긴급조치를 강구했다고 농업부가 전했다(CN). 양계